

# 방사선이 뭐지 ?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방사선. 도대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



방사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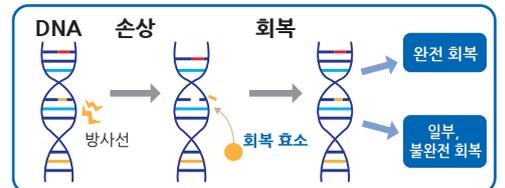
## ● 빛에 비유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전구로 설명하자면 전구가 방사성 물질이고 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이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전구가 빛을 내는 능력이 방사능입니다.



## ● 물질을 통과하는 힘이 있습니다.

방사선에는 물질을 통과하는 성질 (투과력) 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사람의 신체도 통과하며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포에는 손상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처 : 환경성이 작성한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 등에 관한 통일적인 기초자료 2019



방사선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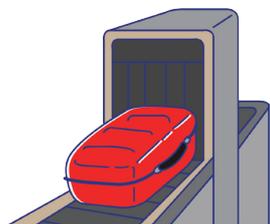
## ●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주, 토양, 공기, 음식 등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몸에 피폭된 방사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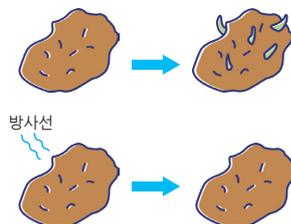
## ● 일상생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공항의 수하물 검사 .....



물질을 통과하는 힘을 이용합니다. 가방을 열지 않고 가방 안을 볼 수 있어, 위험물의 반입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감자의 발아 억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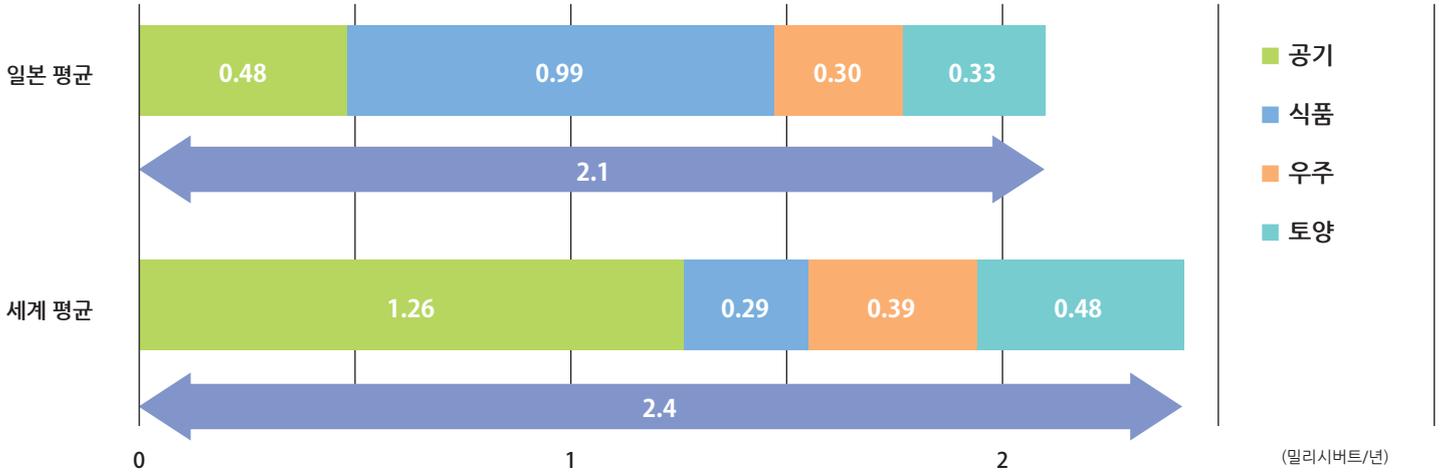


강한 방사선을 쬐이면 싹의 근원이 되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발아가 멈추고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 (연간)

일본인이 자연계로부터 피폭되는 평균 방사선량은 연간 2.1밀리시버트로 추정됩니다.

자연방사선 가운데 일본은 식품으로부터의 피폭량이 많은 반면, 세계적으로는 공기로부터의 피폭량이 많은 것은, 지역에 따라 토양에 포함된 암석의 종류나 식생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처 : 환경성이 작성한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 등에 관한 통일적인 기초자료 2019

##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선량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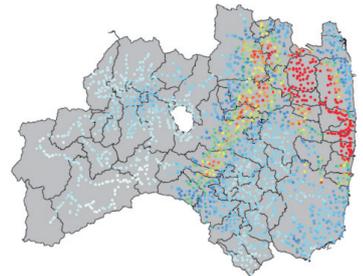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환경 속에 존재하는 1시간 당의 방사선량 (공간선량률) 이 높아진 지역이 있었지만, 시간의 경과와 제염 작업 등으로 인해 낮아졌습니다.

현재, 후쿠시마현 내에 거주가 가능한 지역 가운데는 장소에 따른 공간선량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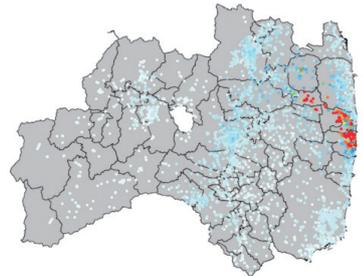


### 지도로 보는 공간선량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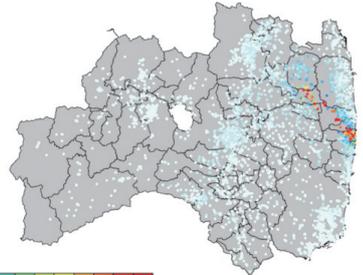
2011년 4월



2015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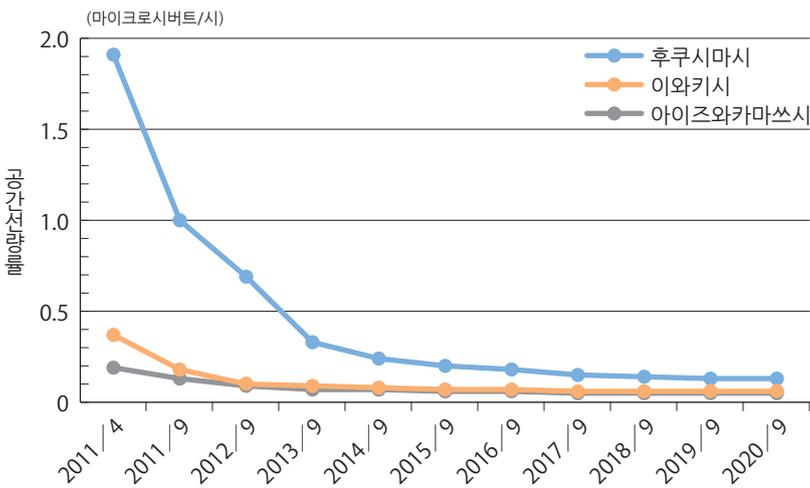
2019년 4월



0 0.1 0.2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0 (마이크로시버트 / 시)

출처 : 후쿠시마현 방사능 측정 맵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선량률의 추이 <http://fukushima-radioactivity.jp/pc/>

### 그래프로 보는 공간선량률의 추이



\* 데이터는 월별 평균치입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홍보지 '후쿠모니' (2021년 3월)

방사선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군요!

